

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협력으로 미래산업 기반 확대

- 「한-칠레 광물자원 파트너십 MOU」 체결로 장관급 협력체계 구축
-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로 핵심광물부터 미래산업까지 경제협력 논의
-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 및 방산 협력 확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현지 시각 7월 30일(목) 칠레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칠레 공식방문 계기에 「한-칠레 광물자원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고 양국 주요 기업이 참석한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또한 핵심광물, 투자, 방산 분야에서 주요 협력 성과를 도출하며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다.

1. 칠레 경제부 장관 겸 광업부 장관 면담

먼저 김정관 장관은 7.30(목) 다니엘 마스 발데스(Daniel Mas Valdes) 칠레 경제부 장관 겸 광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칠레 핵심광물 협력을 한 단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2004년 체결한 「광물자원 협력 MOU」를 토대로 20여년 간 협력의 기반을 유지해 왔다. 이번 한-칠레 정상회담 계기에 양측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한국과 세계적인 구리·리튬 자원 보유국인 칠레의 상호보완적 강점을 결합해 보다 큰 상생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같이하고, 기존 협력관계를 ‘광물자원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광물자원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는 단순한 자원개발 협력을 넘어 첨단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광물 가치사슬을 포괄한다. 주요 내용은 정보교환과 인적 교류를 비롯하여 공동 지질조사·탐사, 개발, 가공·제련, 재활용, 교역 및 투자 등 광물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협력이다. 아울러 양측은 그간 차관급으로 운영해 온 자원협력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정례화하고, 산하에 국장급

실무채널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정상 간 합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정보교환, 기술협력, 인적 교류 및 공동사업 발굴 등 구체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 측은 구리, 리튬, 아연 등 우리 기업의 수요가 높은 칠레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양측은 칠레가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의 핵심 원료인 구리(생산 세계 1위)와 리튬(매장량 세계 1위)을 보유한 자원 강국인 만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우리 측은 한국이 세계적인 제련 역량과 함께 저탄소·저배출 제련, 부산물 회수, 폐기물 저장 등 친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칠레의 광물산업 고도화를 위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공식방문 계기에 격상된 한-칠레 광물자원파트너십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준비하여 양국 간 광물·자원 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 광물기업간담회

김 장관은 칠레 경제부 겸 광업부 장관 면담에 앞서 이번 정상방문에 동행한 LS, 고려아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코트라 등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지역에서 핵심광물 협력을 진행하는 관련 기업·기관 대표 등과 함께 광물자원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금번 순방 계기 칠레광물공사와 「지속가능광업 및 광물 가치사슬 협력 MOU」 갱신하여 칠레광물공사 보유 구리광산 프로젝트 탐사·분석권 확보하고, 이에 기반한 우리 기업 투자 연계 추진 예정

참석 기업·기관들은 중남미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핵심광물 투자 및 구매 현황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투자와 구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 순방 기간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3개국의 광물 담당 장관과 모두 면담을 진행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2 by 2' 방식으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가별 자원협력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민관이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3.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아울러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핵심광물, △첨단산업·디지털, △친환경에너지·교역 확대 등 미래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OCI홀딩스 이우현 회장,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LS구자은 회장,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국내 기업과 칠레산업협회 로사리오 나바로 회장, AMSA 라몬 하라 이사(광물), CAP 호르헤 살바티에라 회장(광물), Automotores Gildemeister 마르첼로 마르케세 CEO(자동차) 등 칠레 주요 기업인이 참석하였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광물 생산국인 칠레와 첨단 제조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단순 자원 거래를 넘어 탐사·개발, 친환경 제련, 배터리 소재 등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LS MnM과 칠레 구리공사(CODELCO) 간 협력 사례와 같은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첨단산업·디지털 분야에서는 한국의 AI·디지털 기술과 칠레의 개방적인 디지털 경제 환경을 연계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네이버는 AI 기술을 활용한 칠레의 소버린 AI 구축 지원 등 디지털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한화오션은 조선·해양 및 방산 분야의 기술협력과 산업혁신을 통한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친환경에너지 및 소비재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과 함께 양국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OCI홀딩스는 친환경에너지 분야 협력 사례를,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모빌리티 협력 방안을 공유하였으며, K-뷰티와 칠레 가공식품 산업 등 소비재 분야에서도 교역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김 장관은 "오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한-칠레 FTA 체결 이후 20여년간 구축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20년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핵심광물, AI·디지털, 첨단 제조, 친환경에너지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한국과 칠레가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산업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는 전략적 파트너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협력, 공급망 구축을 정부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4.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 및 방산 협력 확대

이번 공식방문 계기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 이하 코트라)는 칠레 투자유치청(InvestChile)과 「한-칠레 투자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칠레와 군용차량을 제공하는 방산 계약도 체결하였다.

이번 투자협력 MOU를 통해 양 기관은 투자정보 교환, 유망 프로젝트 발굴, 기업 네트워킹, 투자 애로 해소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광물과 에너지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와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방산 계약을 계기로 추가 조달, 교육훈련, 정비 지원 등 후속 협력으로 이어질 기반도 마련되었다.

김 장관은 "이번 투자협력 MOU와 방산 수출계약은 양국 간 투자와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하고, "정부도 우리 기업의 칠레 진출과 투자 확대, 후속 수출 및 신규 프로젝트 발굴이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 수출상담회 개최

산업부와 코트라는 이번 공식방문 계기로, 7월 30일(목) 웨라톤 호텔에서 「한-칠레 비즈니스 파트너십」를 개최하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칠레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K-소비재, 바이오·헬스케어,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우리 기업 30여개사와 현지 바이어 50여개사가 참여하였다. 상담회 결과 총 120여건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약 500만불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 장관은 행사장 내 마련된 'K-프리미엄 쇼케이스'와 수출상담관을 방문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칠레는 중남미 진출의 핵심 거점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수출·투자 지원과 애로 해소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중남미대양주통상팀	책임자	과 장	이동섭 (044-203-5630)
		담당자	사무관	박경숙 (044-203-5637)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기 (044-203-5240)
		담당자	사무관	김민섭 (044-203-5246)
	자원산업정책관 광물자원팀	책임자	팀 장	장민재 (044-203-5259)
		담당자	사무관	윤가영 (044-203-5258)

